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담당 부서	아동정책과	배포일자	2023년 9월 20일(수) 총 3매	
		담당자	• 아동복지팀장 신유선 ☎440-2881 • 담당자 정효진 ☎440-288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민간단체와 손잡고 예비 자립준비청년 목돈마련

- 20일, ‘디딤씨앗통장 적립 장학금 지원 협약 및 전달식’ 개최 -
-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4년간 1억 4,400만 원 후원하기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예비 자립준비청년들의 보호종료 후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적립장학금 지원 협약 및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과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김정안 회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월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국비·지방비)가 최대 10만 원까지 매칭해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학자금, 취·창업 비용, 주거비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초기 자본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에는 1,000여 명의 아동이 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 아동들도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월 5만 원을

적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매달 3만 원씩 4년간 1억 4,4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저축액의 2배인 월 6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5만 원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 100명을 선정해 적립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들은 1인당 4년간 총 432만 원의 자립지원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김정안 회장은 “민·관이 협력해 예비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뜻깊은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아동이 지역사회에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공헌 사업들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디딤씨앗통장 적립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적립 후원금은 아동의 보호 종료 후 종잣돈으로 자립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예비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3월부터는 자립준비청년과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인(仁)품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인(仁)품’은 인천의 품이라는 뜻으로 인천시와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이 자립할 때까지 부모의 품처럼 지원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또한 인천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사 캠페인 등 지역사회 민간자원과 연계해 보다 많은 예비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진출에 필요한 학자금, 취업 및 창업비용 등 자립을 위한 초기자금으로 디딤씨앗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후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